

# 경제학개론 레포트

<포용적 제도와 국가 번영의 조건>

과목명 : 경제학개론

교수님 : 조용수 교수님

학과 :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번 : 20230053

이름 : 김가경

# 목 차

## I . 서론

## II . 본론

1. 책의 주요 내용
2. 감상 및 ‘총, 균, 쇠’와의 비교
3.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

## III . 결론

## I .서론

GDP(국내총생산), 환율 등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 수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단순히 경제적 지표로 국가의 번영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번영과 실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며, 그 밑바탕이 되는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번 학기 경제학개론 수업을 통해, 정부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이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제 국가 운영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라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와 보조금 지급과 같은 경제적 조치들은 경제학자 개인이 아닌 국가 단위로 시행되며, 정책으로 실현되어야만 국민들에게 실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현실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책의 이론적 기반과 국가의 번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런 애스모글루 (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 (James A. Robinson)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가의 번영을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성광과 실패가 어떤 제도적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지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나눕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제도들의 변화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상적인 담론처럼

느껴졌던 책의 메시지가 12/3 계엄령 선포 이후, 현실적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후감에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II. 본론

### 1. 책의 주요 내용 요약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저자들은 국가의 번영과 실패를 ‘포용적 제도’ (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s)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포용적 제도’는 권력을 널리 분산하고 개인의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며,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착취적 제도’는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 집중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책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발전과 쇠퇴를 어떻게 결정 짓는지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합니다. 대표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제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북한은 동일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습니다. 그러나 착취적 제도가 지배적인 북한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역할을 동독과 서독, 식민 지배의 역사적 영향 등을 통해 분석합니다.

또한, 저자들은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2. 감상 및 ‘총, 균, 쇠’와의 비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주장은 처음 접했을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포용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사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도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화 운동과 같은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책에서 성공 사례로 제시한 ‘영국의 명예 혁명’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영국의 정치적 환경과 세력 균형, 사회적 조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며, 위와 같은 역사적 특수성은 현대의 다른 국가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발전과 쇠퇴의 원인을 지나치게 정치적 제도에 집중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도적 차이가 국가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리적 요인이나 문화적 배경 등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만이 국가 발전을 결정짓는 유일한 원인처럼 다뤄지는 점은 다소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균, 쇠’에서 제시된 환경적, 지리적 요인들은 국가 발전을 이해하는 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국가의 발전에 있어 각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구조와 경제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며, 이로 인해 각 대륙의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제시합니다.

두 책들을 통하여 저는 국가 발전을 이해하는데 정치적 제도와 지리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실패와 번영을 단순한 경제적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실패 원인 분석도 한가지의 관점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느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총, 균, 쇠’의 이론이 각각 제도의 중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임을 고려하였을 때, 두 이론은 상호보완적이라 생각합니다.

### 3.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

앞서 말한 것처럼 책에서 ‘포용적 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포용적 제도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깨진 선순환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시민 참여가 중요함도 체감하였습니다. 계엄령은 착취적 제도가 현대적으로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행시킴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빠른 대처로 계엄령의 해지는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엄령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양극화, 성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사회의 포용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현실의 제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대립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국민 간의 갈등은 제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 사이의 대립을 약화시키는 포용적 제도의 필요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 기회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해왔습니다. R&D 지원과 스타트업 지원 정책들을 통하여 기술 기반 경제를 강화하였으며, 공교육 강화와 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약자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타 복지 정책들을 통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포용적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수록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III. 결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경제적 성장의 토대일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과 사회적 선순환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착취적 제도를 견제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노력의 중요성도 되새겼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저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포용적 제도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고 이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